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4일 (음력 6월 2일) 월요일

전남도, 저출산 극복 보육예산 4127억 투입

월2만원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소규모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학부모 보육비용 감소가 저출산 극복 시작점”

전남도는 4127억 원의 보육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보육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육예산 4127억 원 가운데 시군비를 제외한 3572억 원은 전남도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는 규모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무상보육료 1478억 원, 누리과정 91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81억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583억 원,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차우개산비 209억 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29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 및 휴직 시 대체 근무자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7억 원 등이다.



‘돌미역 채취’ 민재도 주민들 지난 19일 신안군 흑산면 민재도 주민들이 돌미역을 채취하고 있다. 흑산면 남쪽에 위치한 민재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42km 떨어져 있다.

올해 추경에서 지방비로 민간·7점 어린이집 아동 1만 2300명에게 월 2만 원의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취사부 604명 채용에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또 지금까지 원장이 교사, 취사부 운전원 등 1인 4역 역할을 해온 소규모 어린이집은 취사부를 채용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아동보육에 전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극복은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보육비용을 줄이는데서 시작한다”며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와 소규모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도 저출산 극복 플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코미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에 ‘내게 달랠 고 공개 제안을 하고 나섰다. 1명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신 총재의 제안이 묘책이라는 찬성 의견과 나뉠 것으로 산물들을 개인에게 할부로 줄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 총재는 전남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침대 처리 달래야. 뇌물 수도 바릴 수도 없다면 제 부인, 자에게 주시오. 시골집에서 침대로 사용하겠다. 가족이 인수했으니 청와대는 앓는 이를 뽑는 꼴이고 나는 침대를 구한 것이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묘책 중에 묘책 아니오리는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 쓰던 침대를 그대로 두고 삼성 등 사저로 향했다. 관련 인사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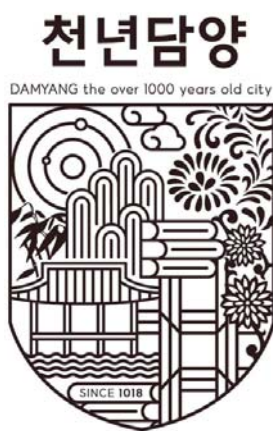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담양군, 담양 지명 천년 슬로건·문장 확정

담양군이 2018년, 담양 지명 천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공식상징으로 활용할 슬로건과 천년기(千年旗) 문장(紋章)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지난 4월 천년 기념사업의 기본이 될 슬로건과 천년 기 디자인 개발에 착

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년 기는 지금까지의 CI 등을 활용한 형태를 벗어나 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형태의 디자인을 택했다. 담양(潭陽)이라는 지명이 암시하듯 대나무와 산천초목은 불과 별



시 한번 부흥기를 맞아 응성하는 형상을 묘사했다. 아 울 러 ‘SINCE 1018’은 고려 현종 9년(1018년)부터 이어진 담양 지명의 역사성을 밝히는 문구로 삽입됐다. 문장 형태

의 천년기 개발은 담양이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슬로건과 문장을 천년 기념사업 추진 과정은 물론, 기념품 제작, 관광 명소 등에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담양의 자긍심을 높이고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전남 7일째 무더위 해안가 천문조 현상 ‘침수 주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7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장흥·화순·나주·진도·함평·영암·완도·해남·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담양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전남 목포·영광·강진·고흥·장성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경보, 33도 이상일 경우 주의보가 발효된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매우 무덥고 더위는 밤까지 지속돼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5~4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바닷가 지역은 2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만조시 침수 우려가 있다.

조인호 기자

슬로건에 ‘천년 담양-자연이 사람을 품다’ 등 3건
‘생태 담양’ 정체성 상징화한 천년기 디자인 개발해

수해 그동안 대표협의회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최근 슬로건 3건과 천년기 최종안을 선정했다.

슬로건은 ▲천년 담양-자연이 사람을 품다 ▲천년 담양-생태와 인문화로 디자인하다 ▲생태와 인문화로 피어나는 담양 등 담양의 천년 역사를 반추하고 미래 비

이 풍부한 생태도시 담양의 모습을, 정자와 책의 국내 최초 인문학 교육도시이자 과거 자연속에서 풍류와 가시문화를 꽃피워왔던 담양의 옛 모습을 담았다.

전체적으로는 생태와 인문학 정책으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담양군이 역사와 문화, 예술, 철학,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2017. 7. 28. 금 ~ 8. 3.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Jeongnamjin Jangheung Aqua Festival

2017년도담양시범지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KOREA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로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할인판매] 2017. 7. 28. ~ 8. 6. (10일간)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

Imagine you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